

청소년 발명기자단의 현장

떴다! 별망 과학발명 동아리

안산 별망중학교 별망과학발명반

안녕하세요. 안산시 별망중학교 발명기자 정수미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별망과학발명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의 발명동아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안산시발명공작실에서 운영하는 과학발명탐구활동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드라이아이스로 만든 슬러시, 미니 행글라이더 만들기, 빠르고 가장 안전한 탐쌍기 등 다양한 탐구활동들을 하면서 우리가 만든 물건이 어떤 원리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 동아리에서 운영한 부스활동은 광물결정모형으로 액세서리 만들기였는데 이것은 중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라 더욱 관심이 있었고, 이 결정모형 핸드폰 액세서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정모양이 잊혀지지 않아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드라이아이스로 슬러시 만드는 것은 드라이아이스가 배출하는 차가운 열을 음료수가 받아서 열게 되는 슬러시, 비레를 잘 맞추어서 만드는 미니 행글라이더 등 만들면서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내가 직접 만들어 가져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저희 동아리는 팀을 짜서 일산 KINTEX에서 “경기과학축전”과 올림픽기념관에서 “과학씩 큰잔치”의 과학실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손가락 화석은 치과에서 사용하는 알지네이트를 이용하여 만들었고, 댄서의 순정은 쿠킹호일과 자석과 건전지로 전류를 흐르게 하여 뱅글뱅글 돌게 하고, 거름종이로 병속의 물을 흡수하게 해서 조금씩 꽃을 피우게 하는 예쁜 꽃을 피우게 하는 예쁜 꽃 만들기 등 다양한 실험을 우리 실험부스를 운영하는 동안 톡톡히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세 번째, 저희 동아리는 다같이 모여 “우주 페스티벌”을 견학하였습니다. 우주 페스티벌에서는 우주에 떠다니는 행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구의 중력에 의해 우리나라에 떨어진 운석들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블랙홀 체험이었는데 정말 짜릿하고 즐거웠습니다.

모형 우주선에 들어갔을 때는 어지러워 서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관의 입체영상을 보려 갔는데 금방이라도 운석이 떨어질 것 같은 실감나는 영상을 보면서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특별전” 견학도 갔습니다.

전시장은 입구부터 색달라서 흰색옷들이 모두 형광 빛이 났고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아인슈타인을 만났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처음부터 천재가 아니었지만 그가 가진 호기심이 그를 아주 큰사람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과 그가 연구한 상대성이론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나도 앞으로는 사물을 볼 때 좀더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전을 다보고 서울과학관을 둘러 탕탕볼, 요술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정수미
별망중 · 발명기자

을 무료로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별망과학발명반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매월 첫째·셋째 주에 발명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방과 후 동아리 친구들은 과학실에 모여 실험을 하고, 그 중에서 재미있는 것을 뽑아 소망지역아동센터의 초등 학생들에게 실험을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알코올 권총, 세팍타크로공, 광물결정 모형 만들기 등의 실험활동을 하였는데 동생들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고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손난로를 만들었는데 자신이 직접 만든 손난로를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행복한 봉사활동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해온 것을 발표하는 동아리 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보석이라는 동아리 친구가 선생님의 지도하에 과학동아리 발표대회에 나갔는데 동상을 탔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과학이 더 좋아졌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과학실로 달려가 꼭 한가지씩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학년과 2학년 언니 오빠들이 와서 다 같이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저희 동아리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 전국학생창작거북선대회, 사이버발명대회, 전국학생만화글짓기대회, 대한민국발명아이디어대회 등 발명에 관련된 상도 많이 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아리는 열심히 실험하고 과학발명에 관련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발명기자단 활동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상 별망중학교 발명기자단 정수미였습니다.

